

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발행 증가 배경과 전망

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

주요내용

- ▶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9월에만 144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최근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음.
- ▶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발행 확대는 정부 재정 수지 개선 및 금융 조달 구조 변화의 필요성 증대, 투자 상품으로서의 긍정적인 시장 평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.
- ▶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, 경제다각화 등으로 재정확대가 필요하여 향후 국채 발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1. 이슈 현황

▶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9월에만 144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최근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음.

□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자국 내에서 19억 달러의 수쿱(이슬람 채권)과 9월 28일 125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음.¹⁾

- 201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75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(international bond)를 처음으로 발행하였으며, 2017년 4월에는 수쿱 형태로 90억 달러의 국제채를 발행한 바 있음.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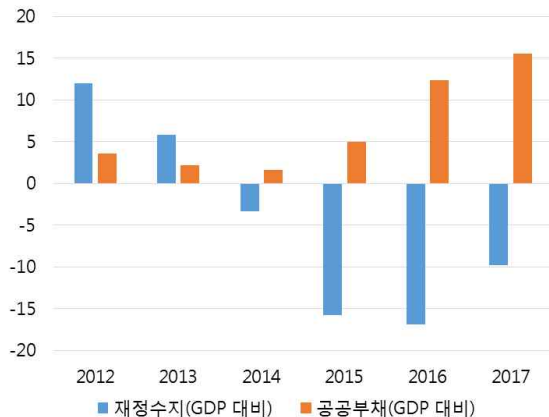
□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GCC 국가들도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하면서 2016년 GCC 지역의 채권발행액은 총 1,0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.2% 증가하였음.

1) '일국의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3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의 인수단 및 판매그룹은 수개국의 은행,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'을 유로본드라고 하며 이와 함께 자국 통화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채를 합해서 국제채라고 한다(KEB하나은행. 국제금융용어사전, 검색일: 2017. 10. 7.).

2) EIU(2017. 10) Country Report: Saudi Arabia, p. 25.

그림 1.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 및 공공부채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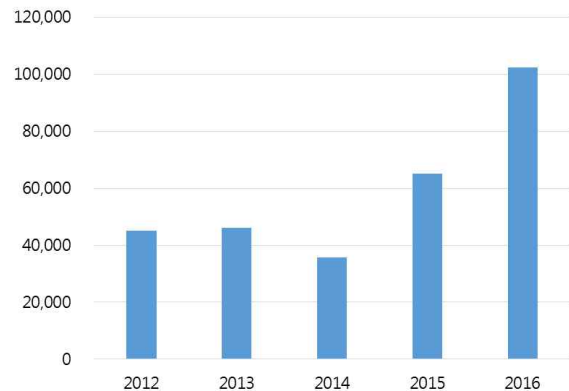


주: 2017년은 전망치임.

자료원: IMF,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(2017. 10).

그림 2. GCC 국가의 채권 발행액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주: 채권 발행액은 국공채와 회사채를 모두 포함함.

자료원: Kuwait Financial Center(2017), GCC Bonds and Sukuk Market Survey, p. 4.

2. 원인과 분석

▶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채 발행 확대는 정부 재정 수지 개선 및 금융 조달 구조 변화의 필요성 증대, 투자 상품으로서의 긍정적인 시장 평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.

-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수입 중 석유 부문 비중은 64.2%(2016년 기준)로, 유가 하락은 재정 수지 악화로 직결됨.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분 충당 및 달러 페그제 유지를 위해 외화보유액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그 규모가 급감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자 함.
 -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화보유액은 2014년 11월 7,479억 달러에서 2017년 6월 5,003억 달러로 감소하였음.
-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은 A1(무디스 기준)으로 안정적인 반면 금리는 높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.
 - 이번에 발행된 국제채는 5년, 10년, 30년 만기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금리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각각 110bp, 145bp, 180bp 높음.³⁾

3) EIU(2017. 10) Country Report: Saudi Arabia, p. 25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, 경제다각화 등으로 재정확대가 필요하여 향후 국채 발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.4%로 장기부채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향후 적정 부채 비중을 유지하고자 함.⁴⁾
 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발표한 국가변혁프로그램에 정부 부채 규모를 2015년 7.7%에서 2020년 30%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음.⁵⁾
- 또한 장기 개발계획인 ‘사우디 비전 2030’ 이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. **EMERiCs**

참고문헌

- SAMA, EIU, Bloomberg 등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4) IMF,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(2017. 10).

5) Ministry of Economy & Planning(2016), *National Transforming Program 2020*, p. 25.